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金鶴香油 金鶴으로端麗하게

社說 小作爭議의 增加傾向

一

最近 法務局調査發表에 依據하여보면 昨年中 裁判所에서만 取扱한 小作爭議調停件數는 一萬一千二百七十이라는 多數를 示하엿는데 이것을 再昨年度에 比較하여보면 一千六百十件의 增加를 示하엿다 그리고 그中에서 圓滿히 平和的으로 調停解決된件數가 全爭議件數의 九割八分을 占하고 其餘二分은 裁判其他의 方法으로 破裂의 悲境을 免치못하엿고 또이爭議件數를 種類別로 보면 小作人申立이 九割五分이요 地主側申立은 五分에 不過하며 또 爭議의 目的으로보면 小作權關係가 九割을 占하고 小作料及 其他關係가 一割을 占하엿다한다。이것은 小作調停制度에 依하야 裁判所에 낫타난 爭議件數이지만 그外에도 裁判所까지 가지안코 中間에서 郡守、警察署長等의 調停和解된 件數가 만흐므로 實際小作爭議件數는 이數字가 表示하는것보다 多大할것은 推測하기 不難한바이요 特히 小作爭議의 種類가 作權關係가絕對多數를 占하고 또 小作人側이 能働的立場에서 爭議를 빗저내는것은 極히 注目에 値하는바이다。

二

朝鮮에서 施行되는 農地令은 小作人生活安定을爲하야 小作權의 確保를 目標로하고 平和스러야 될 農村에서 爭議騷動으로 惹起되는 社會的不安을 一掃코저한것이 立法의 根本精神이다 그러므로 農地令그自體는 土地所有權의 行使에 잇서서 種種의 制限을 法의 强力으로 實行하는것이다 따러서 이農地令이야말로 近代土地立法의 模範에 適應한것이요 農村社會에 平和와幸福을 齎來치 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農地令이 施行된지 四個星霜을 지난 今日에 小作爭議가 一掃되기는 커녕 도리어 그件數가 增加되여 가는것은 立法精神과 効果의 豫期에 反하기 甚한者로 이法令의 再吟味와 再檢討를 하지아니하면 안되게되엿다 더욱히 爭議件數의 內容을 보면 作權關係가 絕對多數요 小作人이 能働的이라는데에 그必要를 感하게되는바이다、即換言하면 作權安定을 農地令이 能히 保障치 못하는것을 如實하게 證左하는것이라고 볼수가잇는것이다。

三

論者써하되 農地令이 施行된 歲月이 아직 短促하므로 小作爭議件數의 增加는 地主의 認識不徹底 小作人의 權利思想伸張等에 依한 過渡期的現象이라고할른지 모르겟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와가튼 皮相的觀察論에 首肯하기 어렵다 웨그러냐하면 農地令이 發布施行될 當時에도 指摘한바와가티 法令 그自體內에 種種의 缺陷을 內包하여 잇슬뿐만아니라 地主와 小作間에 即資本과 勞力關係가 數個條의 法令으로써 一刀兩斷格으로 解決을 보기가 어려운 根本的錯綜이 잇는까닭이다。어쨋던 時方 曠古未曾有의 國家的難局에 處하야 農村의 安寧과 平和는 農業生産의 擴充과 銃後 國民生活安定에 絕對必要條件의 하나이다 如斯한 農村의 社會的經濟的不安의 現狀은 一日이라도 忽諸에 付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農地令의 再吟味와 再檢討를 行하고 小作爭議를 根源的으로 拔絕시키는 有効適切한 手段과 方法을 硏究하는것이 刻下의 急務라고 할수잇다 이方法과 手段에 잇서서는 그 詳細를 本欄에서 論할바가 아니므로 省略하거니와 當局의 注意를 喚起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李廣州警備司令 臨時戒嚴條令發布
張發奎도廣東에到着

【香港十六日發同盟】 廣東來電에依하면 廣州警備司令 李振球는 十五日 管下警備區域에 如左한 臨時戒嚴條令을 發布하엿다

一、政府는 隨時集會를 禁止함을得함
二、食糧品을 當局에서 統制함
三、當局은 隨時、民家、旅館을 檢査함을 得함
四、軍事의 必要에際하야 家屋을 破壞하고 又는 連絡船의 航行을 停止함을 得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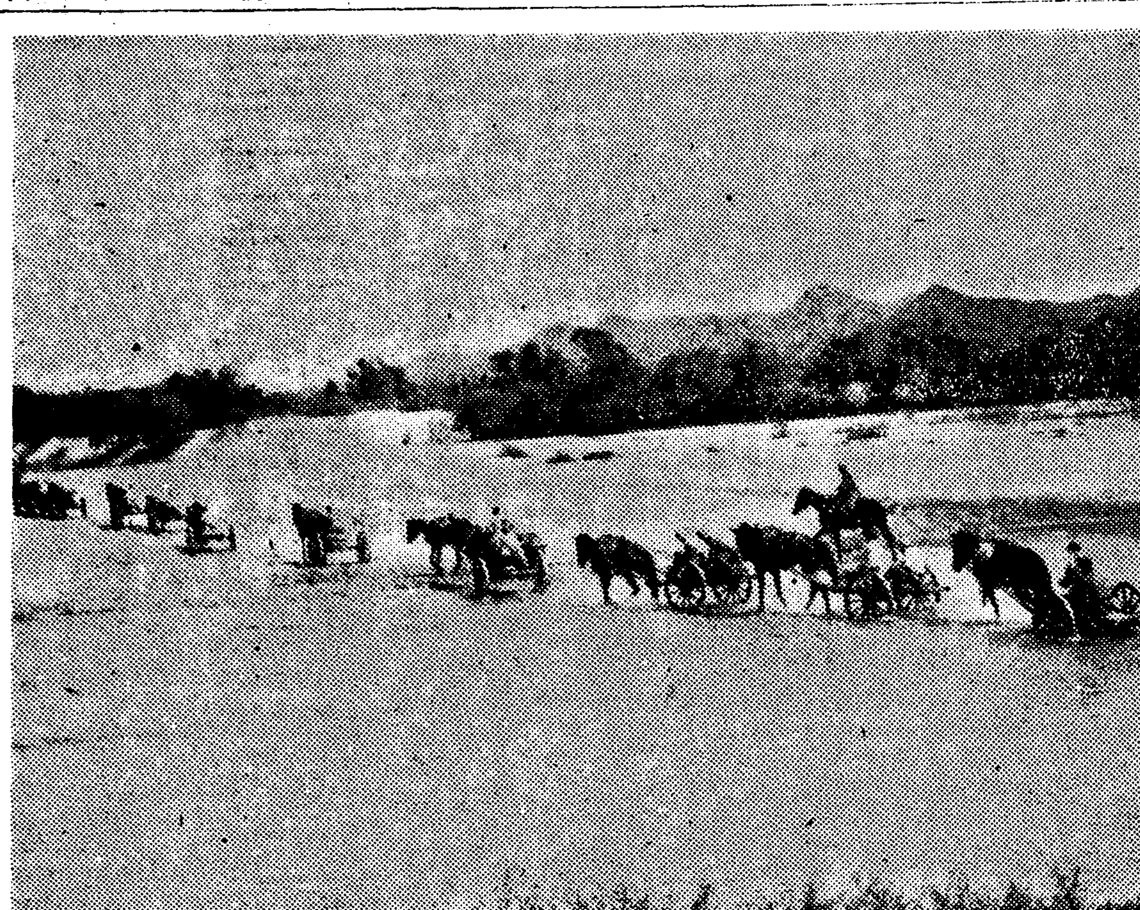
【香港十六日發同盟】 外人側報道에依하면 張發奎는 十五日廣東에 到着하엿다 張은 中央과 여러 協議하고 그 命令을 傳達하려 廣東에 왓다고하는데 張發奎가 廣東防備의 任에當할지 안흘지는 아직 確報가업다

○○個巨彈投下 樟木頭를廢墟化

【香港十六日發同盟】 我海軍航空一隊는 十六日朝 廣九鐵道를 爆擊하야 廣九線 樟木頭驛에 猛爆擊을 加하야 ○○個의 巨彈을 퍼부어 樟木頭를 廢墟化시켯다

宮中賢所의 神嘗祭御儀

【東京電話同盟】 十七日宮中賢所에서는 惶恐하옵시게도 天皇陛下御親祭下에 嚴肅히 神嘗祭御儀가 執行된다 賢所에는 高松宮殿下를 爲始하사 各皇族과 近衛首相以下 文武百官이 參列하야 三條掌典長以下 掌典이 奉仕하야 神饌幣帛을 奉獻하고 三條掌典長祝詞를 奏하는데 天皇陛下께옵서는 黃櫨染御袍御束帶를 입으옵시고 御笏을 들으옵신後 神嘉殿의 南廂에 出御 神宮을 御遙拜하옵시고 午前十時賢所內陣御座에 御參進 御拜禮 御告文을 奏하옵신뒤를 이어 掌典次官이 皇后陛下의 御代拜를 奉仕 皇太后陛下 御代拜 高松宮典拜禮 各皇族御參列諸員의 拜禮가잇슨後 御儀를 마치신다



◇新店附近頭郿坪을 前進하는皇軍部隊◇

廣東避難民 二十萬突破

【紐育十五日發同盟】 十五日紐育에 達한 AP廣東電報에 依하면 我無敵荒鷲群의 猛爆擊을 恐怖하야 避難民이 續出하고 道路란道路에는 避難民이 雲集하야 唐慌히 乘船하는 情況은 凄慘하다 皇軍의 바이야스灣上陸以來

陸豐、海豐等地爆擊

【東京電話同盟】 大本營海軍報道部 十月十六日午後一時發表 十月十五日 南支方面은 季節風이 漸次부러오고 細雨가내리는데 海軍航空部隊는 低雲을衝하야 橫瀝惠州方面의 上陸軍의 戰鬪에 協力하는同時에 陸豐、海豐、龍羅、增城、石龍、東莞、樟木頭、天堂圍、橫石等에서 敵部隊陣地 橋梁 自動車群等을爆擊하야 敵에甚大한損害를 與하엿다 南潯鐵道沿線에 停車中인 貨車群은 거의潰滅되엿다 廣東方面上空及 各飛行場에는 敵機가보이지안는다

三日만에 避難民數는 어느듯二十萬에達하엿다한다 廣東消息側에서는 日本軍은 먼저 廣九鐵道를 切斷하야 對蔣武器補給路를 遮斷한後 徐徐히 漢口攻略을기다려 西南派要人에게 部分的解決을지지안흘가 推測하고잇는바 何如튼 日本軍의進擊을 目睫에두고 廣東市內의 憂色은 一層 甚하다

廣東街道埠頭는 避難民으로大混亂

【紐育十五日發同盟】 十四日 紐育에 達한 UP廣東電報는 南支那側의 情況을 如左히 報道하고잇다 日本軍의 進擊을 阻止코저 目下 增援軍을 續續戰線에 出動시키고잇는데 大部分은 白崇禧摩下의 廣西軍이다 各街의 杜絕되는 河面一帶에는 香港으로부터 食糧을 輸送하는 쌍크가 連해잇다 方今外人을 保護코저 多數支那貨物船이 西江을 遡航하야 外國租界 沙面方面에 殺到中이다 綏靖主任余漢謀는 十四日全市民에게 廣東防衛를 爲하야 武器를 들라고 勸告하엿다 又青年男女의 香港、澳門行은 거의 禁止되고 水路도 亦是 頭埠頭는 避難民으로 混雜되여잇는데 市內는 騷亂하고 劇場도 平常대로 上映하고 엇

南支上陸部隊一部 東江北岸에進出
敵大部隊龍岡附近에集結

【東京電話同盟】 大本營陸軍部十六日午正發表(第十七報)

一、惠州에잇든敵은 一五一師及新編成一團(一聯隊)으로 또 廣東에서 水陸路를利用하야 同地에增援된兵數는 十三日朝까지約五千이엇다
二、寶安에잇든一五三師는 그主力을十三日中 廣九線東側 龍岡附近에集結하엿다 東江北岸增寺附近에는 自衛團을合하야 約二萬이 集結하고잇는것갓다
三、十三日午前九時 我部隊一部는 東江을渡河하야 同河의北岸에進出하엿다 十四日夜 驟雨가왓고 十五日은 曇天으로 오래만에凉氣를 滿喫하야 各部隊는 勇氣凜凜 西方에向하야 前進을繼續하고잇다

人見部隊 辛潭鋪東方進出

【張斗岳十六日發同盟】 人見部隊는 十六日早朝 辛潭鋪東方의要衝 南山高地에向하야 猛烈한總攻擊을開始하엿다 彼我의砲聲은 殷殷히 새벽하늘에 울리고잇다

蘇聯大使館 衡陽에移駐?

皇軍의 猛進擊에 依하야 蔣介石第二의據地 漢口의 命脈은 目睫에切迫하엿는데 情報에依하면 現在同地에 殘駐하는 外國外交機關으로는 蘇聯大使館及英國大使館書記官一名뿐으로 其中 蘇聯大使館은 蔣介石과 運命을 가티할것으로觀測된다 그리고漢口失陷後 蔣介石이 何處를 第三據點으로할가에對하야는 일직부터 昆明說이傳하고잇스나 最近에는 各般의 情勢로 미루어보면 湖南省 衡陽이 決定的이라고보고 잇다 따라서 蘇聯大使館으로서는 漢口失陷後라도 各國大公使의 現駐하는重慶에 退陣치안코 곳 蔣介石에追從하야 轉轉移駐할것은 明白하다고한다

我海軍航空隊 源潭其他爆擊

【香港十六日發同盟】 我海軍航空部隊는 前日에이어十六日도 粵漢線의 源潭、琶江口、英德、銀盞坳等各驛及 廣九線石龍을爆擊하야 損害를與하엿다

國共合作의邊疆政府 農民으로自衛團組織

十月一日附『인프레콜』誌에依하면 河北、山西、察哈爾地方에 國共合作下에 邊疆政府가組織되여 日本占領軍에 脅威를주며 支那開放戰을 援助하고잇는데 同政府는 政治經濟各委員會를가지고 武裝農民自衛團及 抗日人民軍으로써 專혀 게리라戰을行하게한다고한다 또 發行部數 一萬을넘는 抗日新聞도 發行하고잇다고한다

在營期間延長 長期戰態勢完備

【東京電話同盟】 十五日附官報에 陸軍省令으로써 現役 豫備役 또는 後備役의 將校准士官 見習士官及 下士官、現役兵、豫備役兵 後備役兵及補充兵에 關하야 部隊編入中 當該服役期間延長의件을 公布하고 即日施行하엿는바 右는 應召又는 事變地에잇는 部隊에 勤務하는 將兵에關하여서는 昭和十二年九月二十八日 陸軍省令第四十一號로써 服役又는 在營期間을 延長하는旨로 改正된바 今回陸軍全般에 亘하야 그範圍를擴張한것으로 軍의强化를 益益促進하고 長期戰의 態勢를完備한 세음이다 그러고 別로定한것은 이範圍로부터 除外된다

大圓山占領으로 大別山系北麓制壓切迫

【○○十五日發同盟】 大別山系北麓을前進中인 我○○部隊는 連日의霖雨가겨우 개엇스나 十五日 午後二時沙窩의 西南方二키로 地上에 聳立하야麻城街道를 扼한 俗稱大圓山에 猛攻을 開始하야 步砲兵의 緊密한協同下에 潑剌한急坂을 克服하고 午後五時半까지에 同山頂을完全히 占領하야 空中노피日章旗를 揭揚하고 方今勇躍戰果擴大中이다 同地點의 占領에 依하야 바른 敵의 作戰의 一大進轉의要因을지엇다

大別山頂까지 不過三十里

【新店十五日發同盟】 十三、四兩日 霖雨와密雲에막히여 敵陣을偵察할수업서서 活躍을못하든 我砲兵部隊는 十五日 天候回復과 함께 一齊히 砲門을열고 一尺이라도 나가려면 一尺식미끄러지는 山길과 싸우며 步一步進攻하는 步兵部隊와 協力하야 猛進을 續行하야 敵陣地에 巨彈을퍼부어 그心膽을 서늘케하고잇다 步兵攻擊部隊는 이砲兵隊의 有力한協力에 戰局은顯著히 進展되야 猛烈한 射擊을하며 突擊의機會를 엿보고잇다 바야흐로 我第一線 大別山系의 山頂까지의 距離는 겨우三十里로 壓縮되엿다

今日本紙四面

外交官異動

【東京電話同盟】 澤田外務次官 東鄕駐蘇大使等의 外交官異動은 十五日左와如히 發令되엿다

大使館參事官 澤田廉三 任外務次官(一等)
特命全權大使 東鄕茂德 蘇聯邦駐箚被命 獨逸國駐箚被免
大使館參事官 兼總領事(주네브) 宇佐美珍彦 獨逸國在勤被命 兼任官、國際會議帝國事務局次長을免함
大使館參事官 柳井恒夫 兼任總領事(三等) 주네브在勤을命함 國際會議帝國事務局次長을命함 獨逸國在勤被免

陽辛鎭도陷落切迫

【南潯線十五日發同盟】 辛潭鋪上流二里의陽辛鎭에 肉迫한 我濱田、吉田、山田各部隊는 陽辛鎭西北方의 均山嶺天嶺에據한 敵에猛攻을繼續하기三日間 十五日夕陽 드디어 敵의陽辛鎭防衛의 第一線인 仙姑殿、製、嶺尖、張飛嶺線에進出하야 다시北方으로向하야 戰果를擴大中으로 目標하는陽辛鎭까지 不過二키로밧게 남지 않엇다

世界週史

隘口街占領

德安南西方面에의 敵要衝隘口街는 敵이數十萬大軍으로頑强히抵抗하고잇든곳인데 我猛攻으로 廬山南方戰線이 全滅에直하야 崩壞되여 九日未明에는 隘口街로 北方德安山、夕陽에는 隘口街로 北方一連의陣地를 逐次占領하니 敵은 隘口街를 放棄하고 德安方面으로 潰走하야 難攻不落을자랑하든 隘口街도 어이업시 陷落되엇다

信陽陷落

武漢北方防衛의重要據點인 信陽은 十數個師의兵으로 近代的陣地를 設施하야 蔣介石은 難攻不落을 豪語하얏스나 六日에京漢線이遮斷되고 또東、南、北三方으로의 我猛攻에 견디지못하야 十二日午後七時드디어 陷落되엿다 이로말미암아 武漢의運命이 急速切迫되는 同時에 武漢과 鄭州、西安方面과의 連絡이 完全히 斷切되엿다

戰局南支에擴大

長期抗日의 支那軍을 徹底的으로 膺懲함에는 敵의 軍需品 重要補給路를 遮斷하야 抗日의 根據를 覆滅하여야 한다는 見地로부터 皇軍의 一部隊는 十二日早朝 南支바이야스灣에 奇襲上陸하야 十三日 午正에는 淡水를 占領하고 十四日夕刻에는 東江河岸에 到達 十五日早朝에는 惠州城을 完全占領하엿다 我南支攻略에 驚愕한 蔣介石은 中央軍一部(十個師)를 廣東에 增援하기로하고 湖南軍을 廣東으로 增援中이다

체코、匈牙利會議

체코內의 匈牙利少數民族問題를 解決하려는 체匈會議는 九日체코領內코말노市에서 開始 連日商議를 거듭하야 匈牙利人居住地域의 割讓問題에 關하야 兩者의 意見이 거진一致되여가다가 十三日에 이르러 會商이 드디어 決裂되여 匈牙利代表 데칸야外相 一行은 卽時 歸國하야 英佛獨伊에 斡旋을 要請하기로되엿다

伊義勇軍撤收聲明

西班牙問題는 英伊協定의 前提條件인바 英伊協定後 西班牙問題解決에 對하야 解決第一段階로서 伊太利政府와 交涉한 結果 原則的으로 意見의 一致를 보앗다 此에依하면 英佛은 伊國의 에디오피아併合을 正式으로 承認하는代價로 伊國은西班牙의 義勇軍을 撤收하기에 同意하고 八日羅馬에서 公式聲明書를 發表하엿다 이리하야 過去十八個月以上 프랑코軍에 從軍하든 伊太利義勇兵은 撤退하기로되엿다

德安西方甘木關敵 五、六千을擊破

【南京十五日發同盟】 中支軍十五日午後七時發表 德安西方의 我諸部隊는 今日 甘木關附近에서 五六千의敵을擊破하엿다 敗敵은 永修方面에退却하려고하나 我空中攻擊部隊의 猛射에 脫出키困難한模樣이다

新銳今市部隊 富水北岸福山을占領

【張斗岳十六日發同盟】 我新銳今市部隊는 十五日夜 夜襲으로써 頑强히抵抗하는 敵을擊破하고 富水北岸에 屹立한 福山을 占領하엿다

石田、平田兩部隊 八相을占領

【瑞家埠十五日發同盟】 一路北進中의 我○○部隊는 又復富水支流의 浸水에 逢着하야 前進을 못하고잇던바 十五日早曉 一齊히 進擊을 開始하엿다 白山岩 王毛尖 石龍山의 重要高地를 占據한 石本、平田西部隊는 早曉부터 山砲○砲의 猛烈한 掩護砲擊下에 果敢한攻擊을 開始하야 石本部隊는 各高地를 順次로奪取 斗龍頂高地를 占據하고 一擧에 浸水地帶에突入하야 八相南方高地에서 頑强히 抵抗하는 七、八十名의敵을 殲滅 同陣地를 突破하고 十五日午後四時 드디어 크리크를渡河 敵의 堅壘八相을 占領하엿다

近衛首相中心으로 文官制度改正檢討

【東京電話同盟】 文官制度改正案을 檢討中인 末次、鹽野、木戶三相은 十五日 正午부터 首相官邸에參集 近衛首相과함께 問題의核心이라할 勅任文官 銓衡任用及 身分保障令撤廢問題를中心으로 四相間에 隔意업는 意見交換을行한結果 前日三相會議에서 法相、內相間에 意見一致를 보지못한 勅任文官銓衡任用問題에 關하야는 同時에 各省人事의 交流를 꾀하는 見地에서 技術官其他專門家外에 官名列擧主義를 倂用한다 但地方長官은 從來대로 內務省 出身者를 採用한다는데 意見이一致되엿는데 任用銓衡과 및 各省人事交流의 執行機關으로서의 人事局設置問題에關하여는 木戶厚生相으로부터 便宜上 內務省에 設置하면 如何하냐는 提案이잇섯는데 末次內相은 人的運營이 圓滑히될지疑義가 잇다하야 結局 그點에 關하여는 法制局에서 다시 硏究키로하고 身分保障令撤廢에 關하여는 樞密院其他方面에 難色이잇스므로 이를 撤廢치말고 停年制와가튼 것을두면 如何하냐는 意見이 잇섯는데 高等試驗令과함께 繼續 三相間에 檢討를繼續하기로하고 午後四時散會하엿다

辭令

【東京電話同盟】 京城米穀事務所釜山出張所長 農林技師 中川研一 命京城米穀事務所釜山出張所長 (京城米穀事務所勤務) 農林技手 松岡寅治郞 命佐賀米穀事務所長

日曜氣配

▲株式 金融緩慢으로 雜株에 對하여는 選擇買氣强하다 戰局의 進展에따라 押目買强하야 氣配는手堅하다
大新 一八〇 鐘紡 一三九〇 東新 一三〇五 滿重 一六〇
▲期米 政府拂下發表로 弱含이나 天候不良으로因한 作柄懸念이 업지안코 出遲豫想에 深押은困難視되야 氣配는手堅하다

本社參觀 (十五、六日)

▲京城秀英學院生徒百名 ▲公州永明實修學校生徒卅六名 ▲黃州養成學校生徒四十一名(金山川氏引率) ▲廣平講習所生 十一名(安雲龍氏引率) ▲滿洲輝南街公立東興國民學校生徒二十三名(李臣鳳氏引率)

人事・集會

▲河口東一銀行專務는 栗原熊務課長 李秘書帶同堤川支店披露次出張中이던바 十六日午後七時歸任

八面鋒

◇英大使漢口를訪問 蔣의命脈을打診。慢性抗日症으로 心悸亢進한데는 下野靜養이名處方어지마는!
◇廣東의余漢謀에게 蔣이督勵電。生殺을與奪하는督戰隊도失敗한督勵。
◇歐洲安全保障次 英佛獨伊第二次會談。체코를血祭로맛드린四國『二次會』酒肴는 어느小國?
◇敎育擴充에『萬難』을 排除는恒例、豫算削減『一律』만排除코感得。
◇調停申立原因의九割은 [illegible] 權移動。남은 [illegible] 로四捨五入이可。

全國藥店에잇소
喘息特効劑 スペロイン SUPEROIN
스페로인
◎가짜가잇스니 『스페로인』이라고指定하시기를바랍니다
喘息 氣管支카타르 心臟性喘息 感氣 百日咳 기침諸症
多年苦心發明한 本劑를 지금곳服用하야 이무서운 病魔를退治하시라 『스페로인』은 全國藥店에서 取次販賣합니다마는 萬一品切될때는 直接本舖로申込하십시오
藥價 三日分六十錢、六日分壹圓、十五日分貳圓、廿五日分參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
送料前金은無料代金引換은滿鮮四十五錢을要함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三丁目 發賣元 東亞藥園 振替大阪七五一四番 電話天王寺四〇一五番

완고한기침 喘息 천식
注射以上의 高貴藥劑!
主要効能 氣管支性 천식 心臟性 천식 氣管支 카타르

とかく— 時間のかゝる婦人の整髮に 時間のからぬ丹頂の整髮が モテるのも蓋し これは當然です
파리一製보다優秀한 丹頂チック 國產最高級品 純植物性 專賣特許 金鶴香水株式會社

蝶印 쇼ー루 首卷 製造發賣元 合資會社 橫田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心齋橋筋角 ▲型錄送呈(同業商店以外ニハ紹介ニ發送致シマセン)

帽子揃品 帽子卸問屋 阿部淸商店 大阪市東區島一丁目 有益型錄送呈(但商店ニ限ル)

ステッキ パイプ 卸商 現代的趣味에最合한 實用 高貴行이 가장良好한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合名會社 井村友三郎商店 電話船場四一〇二・振替大阪貳八九〇番

洋服界의合理化 品質仕立은責任保證付 創業明治二十八年 ◇見本發呈 二十五圓부터 四十圓까지 二十圓부터 三十七圓까지 別誂注文 服背廣三揃 別誂注文 冬オバーコート 特約店大募集 大阪市谷町一丁目三七番地 正司憲商店 洋服通信販賣部

冬物品揃 製造販賣 在庫豊富 男女小兒服 小兒オーバ 現金問屋 尾崎商店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袋物卸商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矢澤商店 見本陳列・型錄進呈

旱災地의災民을救濟하자!

一萬六千餘戶農家 赤地서過冬策漠然

農作物被害만 一千三百餘萬圓推算

"朝飯夕粥"조차昔日夢

이만구천칠백사십팔정보의 전답을 고갈시켜서 일만육천여호의 농가에 일천삼백오십여만원의 거대한피해를준 경상남도의 한재(旱災)구제에대하야는 총독부사회과와 경상남도당국에서에 산기타준비를 급히하고잇는중이나 예산지출기타 여러가지 수속관계로 실지구제착수는 명춘일월경부터나 착수하야 이재민에게 설상가상으로 닥처오는 춘궁(春窮)을 구제하게되엿다 그러고보족 장차엄동을압두고 명춘까지 그들이 먹고 입고 살어갈생도가 문제이다 한발에타고 남은 잔곡(殘穀)에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섞거위선 참담한생활을 근근히 계속하야갈 이재민이 다소 잇기는 잇스나 이역시 그다지 만치는못하다그주에도 의령군궁류면(宜寧郡宮柳面)과 창녕군길곡면(昌寧郡吉谷面)의삼백여호 일천오백여명은 매일피고남으로(餓)에 초근목피를 섞근죽으로 겨우연명하야가는 참상으로 그가련한정상은 참아볼수가업는 형편이며 이들피도 그다지만치못하다고한다 이들이재민이 거주하고잇는 전기의면군 궁류면과 창녕군길곡면으로말한 산간벽지로서 구제사업을 실시하라도 실시할도리가업는곳이며 금년가을에까지 한발이 심하야도 배추등 채소도 죄지가되여 진장기라 농가의 부식물조차 그립자도 구경할수가 업는터이다 그리하야 이들을 위선 구제하자면 그대로 먹을것을 대금으로 현물로 주어야 할터인데관청의 일이라그대로 동정수는업고 도관부수해처럼 일반이참혹지 못하는터이어서 구제동정금조차 한푼이 드러오지 안는고로 엄동설한을 압두고 그들의 살어갈것은 가위속수무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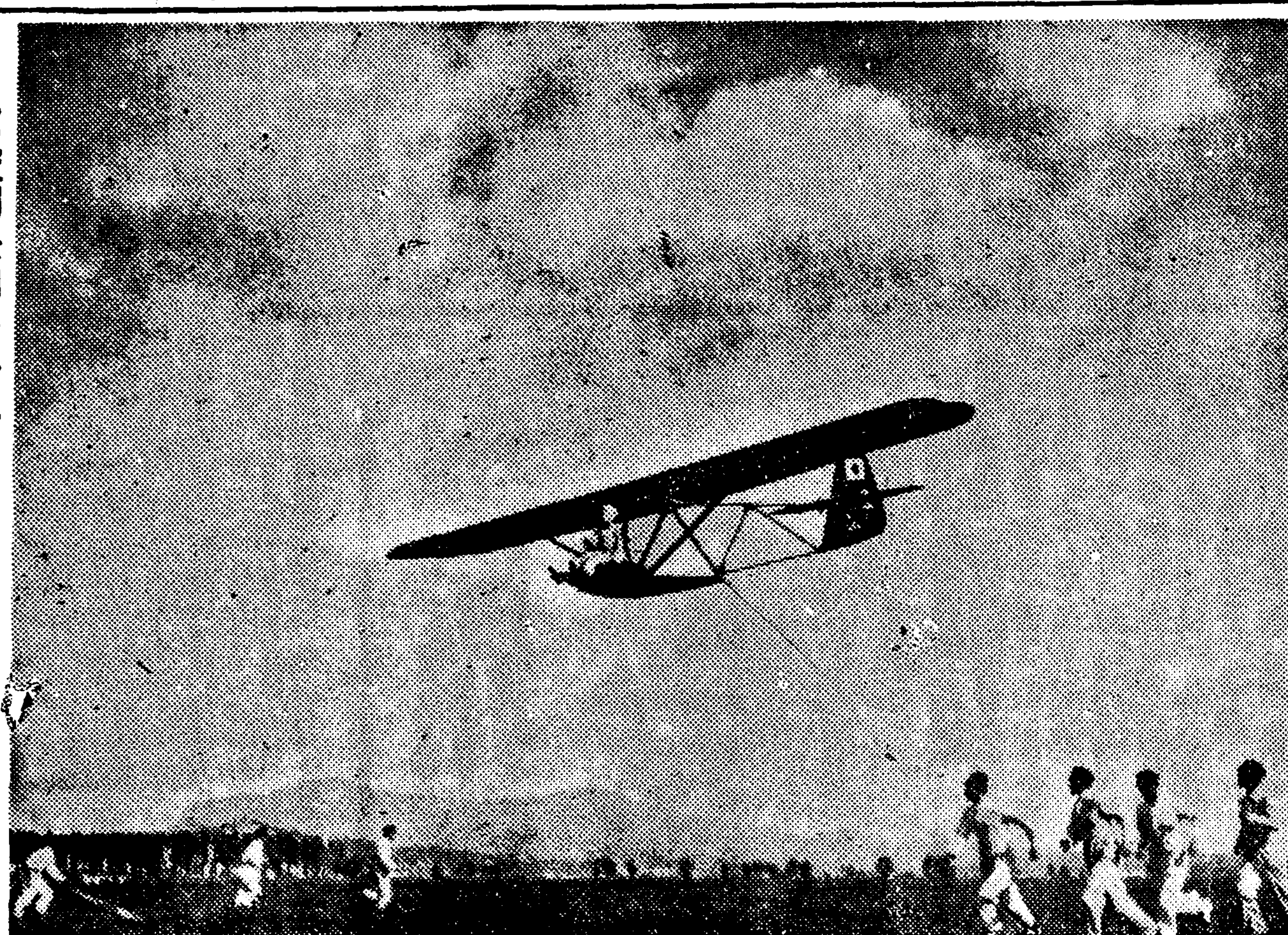
함북(咸南北道)수재는 비록인명 가옥등의 피해는 만엇스나 농작물의피해는 함경남북도를 합하야 일천오십오만원에 불과한데 경상남도한재는 아직인명 가옥등의 피해는업스나 농작물의 피해는 일천삼백오십여만원으로 약삼백여만원이나 더한데이전상대로 면기한에못견디어 생기는 인명의피해도잇슬비참한정경이다

특을보이고잇다 그중한형편은 금망으로서 총독부사회과는 이것의정리에 눈코뜰새지못한다

躍動하는鑛山景氣 鑛區出願件數激增

九月末까지에最高記錄突破

광산경기(鑛山景氣)의 최고기록—금은동철(金銀銅鐵)을 위시하야 무연탄 중석 수연(水鉛)마그네사이드등 조선의지하재원은 전시의조혼 조건에 맞추어 산금진흥회사(産金振興會社)중요광물증산령등의 적극 정책에 따라서 지하의 보배를 차즈라고 협안활동하는 대소광산가의 의기도놀납게광업권의출원자는홍수처럼 밀려든다 소화팔년에는 광구출원 오천이백십건 구년에 구천사백사십칠건 십년에는 일만백오십삼건 이엿는데 십일년에 급격히 감소되여서 유천여건 십이년에 사변의 영향으로 다시격증되여 팔천여건을돌파 금년에는 팔월말까지에 벌서구천삼백사십오건으로서 금년안에는 파거의 최고기록인 소화십년의 일만백건대를 돌파할것으로 보인다 구월에 드러서 출원수만 벌써일천삼백 삼십사건으로 한게일만구백 칠구건이 되여서 최고기록을



秋空에快翔하는그라이더 (今日京城飛行場에서의滑空競技)

戰時利得의半分

國防獻金等에五十一萬圓

永登浦京城紡織會社에서提供

(사진은 경성방직 회사 사장 김연수(金秊洙)씨)

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會社)에서는 십사일중역회를 개최하고 금년상반기의 리득금처분에대한 협의를하엿는데 금년은 시국관계로 뭇끼가폭등하야 리득을 만히보앗슴으로 오십일만원을 국방헌금과 기타에 기부키로하고 십오일 군당국과총독부 기타관계당국에 그뜻을전햇다 그금액의 내용은

一、십만원을 국방헌금으로바치되 칠만원은 륙군에 바치고 삼만원은 해군에바치고

二、십만원은 복지방면 조선인자제교육비로 내이는데 총독부에 바치어 복지군당국 관계당국에 협의하야 바치게하고

三、삼십만원은 기술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제공키로하야 총독부학무국에 맛기기로할 모양이고

四、일만원은 동공장이잇는 영등포(永登浦)방면의 교육기관 기타에 적당히 분배기부키로 하야 합계오십일만원을 내놋는데 동회사에서는 이익을보는만큼 복지조선에가서 인관계에도 기부를 하게되는것이다

遺失品萬圓突破

健忘症걸닌平壤市民

【平南支社發】 건망증(健忘症)의 도회인이 삼년간싸허모흔 재물이 만원에가깝다—평양경찰서조사에의하면 소화십년부터 십이년까지 삼년간의 유실물(遺失物)은 총건수육천백이십건에 금액 구천백육십사원인데 이것을 연별로보면 소화십년에는 약이천건에 사천팔백여원이던것이 십이년에건수는 이천칠백여건으로 느러스나 금액은 약 이천원으로 격감하엿스니 세상사리가박절하여지면 착황중에불건을 일키는만하하나 갑잇는것은 정신을바사채려 조련히 일치안케되는모양이다

自動車끼리衝突

십삼일 오후아홉시 사십분경 부내 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압 거리에서 황금정(黃金町)이정목 유십삼번지 최은수(崔殷洙)(二〇)가 운전하고가는 자동차와 죽첨정(竹添町)삼정목 삼백오십삼번지 고태림(高泰林)(二〇)이가 운전하고가든 자동차끼리 충돌을하야 쌍방이 모두 이삼백원식의 파손을 입엇는데 운전수들은 기적적으로 조금도 부상을 당하지안코 최은수차에 타고 잇던 다옥정(茶屋町)일백이십일번지 김경애(金景愛)(二〇)만 가슴과 얼굴기타에 타박상을입어 직시 서소문정(西小門町)전중환병원(田中丸病院)에 입원치료중이라는바 전치일개월의 중상이라한다

金鎭外科

靈峰을仰瞻

本社金剛山婦人見學團動靜

【長安寺에서特派員金鍾耀發】 십오일밤 열한시오분 경성역을 출발한 본사주최 가정부인 들노리 금강산(金剛山)탐승단일행 오십오명은 본사원 삼명의안내로 오늘(십육일)아침 여섯시이십분의기왕성히 내금강역(內金剛驛)에무사안착하야 자동차네대에나누어라고 장안사(長安寺)로향하야 미리준비하야노코 고대하던여관에 드러 여장을 풀고 천하명산 금강산의 아츰 공기를 마시어 하룻밤차중의 피로를씻은후 금강영봉의 여러가지 산채를 곁드린 아츰밥을 마친다 일행은 오전구시삼십분 탐스러운 잣(栢)송이 버러지고찬란한 단풍으로 장식한 명경대(明鏡臺)만폭동(萬瀑洞)등 내금강의 절경을구경한후 이날장안사에서 산중의 하룻밤을 보내게되엿다 명십칠일은 아츰에자동차로 장안사를 출발하야 외금강 만물상을 탐승할예정이다

連休日에사람沙汰

京城驛에만五十二團體殺到

벼룽미테 버러지는 추수행낙의 만회경—일요일에 제일을거듭하야 연나흘동안 쉬이게되여서 경성역에 오르고 나리는 행낙단체는 십오일하로에만 사십일단체 약이천구백명 그우에 십오일 밤 열시와 열한시오분의 야열차로 내외금강산에 향하는 탐승단체를 합하면 본사주최가정부인들노리대회의 오십여명을 필두로 내금강행단체는 약사백오십명외 금강행이 약백오십명으로서모다 행낙단체 오십삼단체 삼천○백여명이 경성역에서떠나게되엿다 금강산은 내외금강이 전부여관이란 여관은 모두만원되엿고 철도파계원은 눈코를뜨지못할지경이엿다

乞人賭博 개천다리미테서버러진

거지들의 투전판이 경찰의 습격을바덧다 십오일오후 세시경 숭인정(崇仁町)영미교(永尾橋)다리미테서는 주소부정의 거지 한백만(韓百萬)(三〇) 최덕진(崔德鎭)(三〇)두명이 투전도박을 하다가 순시하는 동대문서원에게 현장을 습격당해서판돈 사십구전과 투전마흔여덟장을 압수당코 유치장에 드러갓다

連續休日에 防·犯·檢·束

本町署留致場에"룸펜"部隊

사일간의 휴일이 연속되여서 시민은 명랑한가을을 구가하는데 여기는 사일간의 휴일이잇스므로 혹미아마 우울한 날을보내지안코편안되는 무리가잇다 시내본정경찰서에서는 십육일 새벽 관내파출소원을 총동원하야 룸펜오십여명을 검거유치하엿는데 이것은 십육일부터십구일까지 연사일간의 휴일을 마지하야 시민들이 집을비우고놀너나가게되므로 빈집을 노리는 범죄를예방하는것인데 범죄유무를불문하고 이틀은휴일이 뭇날때까지 예비검속을 하야둘러이라한다

線路班員殉職

【滿浦線宿電】 십삼일오후령시사십오분에 만포선(滿浦線)강계역(江界驛)을떠나 평양으로가든제팔백이렬차가 공인(公仁)으로운(?)모로선로반(線路班)김세훈(金世勳)(二〇)이선로부근으로부터 렬차의 아페 뛰어나와서 중상되야 머리에 중상을입어서 오후두시이십분에순직하엿다한다

德安攻略戰 全國에實況放送

【臨口街十五日發同盟】 대일본방송협회(大日本放送協會)의 평산(平山)기사중촌(中村)천야(淺野)아나운서등일행 십일명은 군당국의지도하에 황군의덕안(德安)공략부대의녹음에의한 실황방송을 준비 중이엿는데 십팔일오후일곱시십오분부터 십분간전국에 향하야 녹음에의한 실황방송을하기로되엿다

色鉛筆

조선의가을은 아름답다 하늘은 놉게개이고 바람은 맑은데 때는마츰 단풍이 물드시작하는때이라 더구나 아름다운지방을 말할때에면 산천이 아름답다고하는데 실상 산이잇스면 물이잇고 물이잇스면 산이잇서야 경개가아름답다▲그중에도 물의 아름다움을 우리조선가튼곳에서는 잘모르다 물이라면 샘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 가는곳마다 맑은편게로 의례히 물이라면 맑을줄 알고 마실수잇는것가티 생각한다▲그러니 물은잇스되 가는곳마다 흐리고 또다소 맑다하되 풍토가 사나워서 마실수업는지방이 다른나라에가면 얼마던지잇다 중국과 만주가 그러타▲이러코에 비하면 조선은 산천그것이 복되기그지업다 이점을 생각하야 맑은날 가을을 즐기려 교외에 나가는이들은 한층더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을 사랑하라

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 노래공부▲六時一五分 修養講話 ▲七時三〇分 獨唱▲七時五五分 京城歌謠▲八時一五分 라디오드라마 ▲九時四〇分 時調▲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二放送 ▲午後六時(大)連續劇▲六時二五分(東)講演▲七時三〇分(東)物語▲七時五五分(大)尺八▲八時五分(大)國民歌謠▲八時四〇分(大)落語 ▲九時(東)피아노와管絃樂

曆

▲十月十七日(月曜)陰八月二十四日▲神嘗祭▲干支壬午 前六時四十二分▲日南中午後零時十分▲日入午後五時五十五分▲晝間十一時十三分▲月出——▲月入午後一時五十六分▲滿潮(仁川)午前十時四十五分과午後十一時四十分

天氣豫報

概況 颱風은 本邦中部의南海上約一二〇키로에잇서 中心示度七三〇미리를보이고北東으로進行하고잇다 高氣壓은北支那에서滿鮮에 擴大되엿다 南鮮은흐리고 北風이 强하고 中部以北은 개인편으로 바람도弱하다 中部地方은 風雨가强하다 그外는天氣가조타

豫報 今夜도 明日도 晴一時曇

昨日最高	一八、〇
昨日最低	七、三
十六日朝六時	五、一
同 正午	一五、二

漢城醫師會 新役員決定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에서는 십사일역원회의결과 다음과가티 새로역원을결정하엿다 ▲會長 申鴻澈 ▲副會長 任明宰 ▲幹事 姜啓部 ▲同 李甲秀 ▲同 李鐘英 ▲同 尹治衡 ▲同 金東根 ▲同 張憲高 ▲評議員 鄭求忠 ▲同 朱永根 ▲同 鄭子英 ▲同 劉宗熙 ▲同 金東益 ▲同 朴仁茂 ▲同 劉洪鍾 ▲同 李容來 ▲同 崔濟昌 ▲同 李日永 ▲同 朴昌勳 ▲同 金洪泰

高價貸付 日出質店 電光一八九六 悅賓樓앞골목

朝鮮神宮體育大會

中等道對抗庭球戰 平北軍이遂優勝

淑明과進明籠球決勝에

제십사회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는 十六일은 오전구시부터 경성운동장 대륙체육관 부청코-트등 각처에서 각종목결승이 전개되어 흥미는 더욱 커지고 있어 정진한 긴장한경기가 일새히 열리엿는바 이날중요경기의 전적은 다음과가다

道對抗庭球

◇男子中等部 중등연식정구대항결승은 십육일오전구시부터 경성운동장코-트에서 거행하엿는바 평북중학의 정확한 묘기는 완승하엿다

【決勝】

平北 2 — 0 京畿

(平北)崔祥駿·金允鍾 5—6 金在弘·崔昶林(京畿)

(平北)金衡培·金玄鎭 4—0 張在玄·金時壽(京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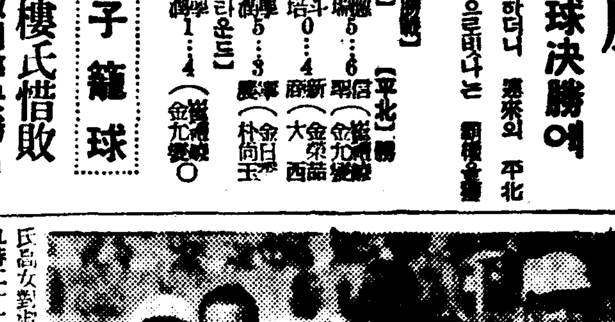
(平北)金日秀·朴尚玉 3—5 張在煥·金成律(京畿)

×(第二라운드) 崔泳煥·金允鍾 4—1 張在鳳·金成學

女子籠球

元山樓氏惜敗 對淑明準決勝에

女子籠球準決勝 淑明 元山樓氏를 破하엿다



(寫眞은 平北中等 優勝代表選手)

樓氏高女對淑明高女戰은 同日午前九時二十七分부터 열리엿바 아깃자깃한熱戰이엿스나 樓氏高女의 惜敗하엿다

淑明高女 24 (9·15 / 8·9) 17 樓氏高女

【午前九時二十七分 審判 鄭蓮·安台邊兩氏】

樓氏	前後反	淑明	前後反
F 池貞玉	310	F 崔玉順	324
F 李惠姬	301	F 金順姬	325
C 李敦玉	130	C 沈七星	012
G 崔貞德	002	G 李福周	022
G 鄭惠順	243	G 朴金姬	122
	986		7915

進明高女 16 (8·8 / 2·7) 9 第二高女

【午前十一時廿四分 審判 金振秀·李文鎬兩氏】

二女	前後反	進明	前後反
F 志村	000	F 朴正淑	042
F 星野	203	F 韓富敦	002
C 矢內·橋田	100·022	C 尹己蓮	022
G 齊藤·肥塚	202·200	G 安玉卿·朴晶玉	022·100
	727		188

陸上選手權

【一般走幅跳決勝】 1金源權(普專)六米七三 2北野(咸南)六米三二 3朴勳雄(遞信)

【一般投砲丸決勝】 1安永漢(培材)一二米四三 2李采文(全南)一二米二六 3姜永善(高麗)一一米四 4朴永燮(平南)一一米六

【一般米決勝】 1柳長春(京城)三二 2吳昌濟(培材)三二二 3張春興(開城)四 4金德淳(京城)

【千五百米決勝】 1洪顯文(普專)四分一二秒二 2佐藤(總督府)四分一四秒六 3崔峰名(全南)4劉寬興(培材)

【女子百米決勝】 1須谷(二女)一三秒五 2堀川(沙里院)一四秒3 佐佐木(一女) 4金蘭南(海州旭町)

【十種競技前半戰績】 1石川(全北)八一三 2時田(朝鐵)二天九三 3白龍基(徽文)二四一四 4朴贊巽(普專)二〇七三

【女子五種競技前半戰績】 1李明姬(海州幸町)五五 2飯田(春川)安東(海州旭町)各四九 4小平由井(群山)四一 5大隅(春川)四一 6岡崎子(春川)二四

◇男子中等部

【準決勝】 咸山中學 2 (21·21 / 5·15) 0 平壤一中 / 京城師範 2 (21·21 / 11·16·21) 1 釜山二商 ...

(咸山中)井井松 村水田 地島口 / 荒間小 宮下江 / 原田·下田·小倉安·杉李福 / 京城師範 中間·後衛

◇女子中等部

【準決勝】 京畿高女 2 (21·21 / 19·13) 0 東萊高女 / 進明高女 2 (21·21 / 6·17) 0 同德高女

女子庭球

【第一回戰】

商女(金玉秀·咸栄波) 4—1 大邱(橘本·里見)
京城(孟尹·時永) 4—0 同德(金玉·黃愛順)
海州(板垣·樋口) 4—1 上向
淑明(金玉姬·鄭永福) 4—0 釜山(永田·藏津)
永山(赤久·保田) 4—0 同德(辛玉·金貞姬)
一女(江川·尾子) 4—1 進明(洪玉·金潤)
海州(金敬信·金泰信) 4—1 數氏(許盛)
北合(林朴) 1—4 德回(林成·李成玉)
北慶(申貞姬·裵淑末) 4—0 全北(朴李)
群北(坂野·天口) 4—2 樓氏(朴誠)
平女(小田·栗迫) 4—1 進明(金鄭·高順)
二女(古賀·竹丸) 4—2 釜山(李王·朴英七)
同德(金淑·李貞在) 4—1 海州(李春化)
釜山(梅田·山崎) 4—1 京畿(張麗玉)
進明(權貞順·金順) 4—2 元山(松崎)
二女(福田·松尾) 4—3 大邱(竹內·吉村)
女(李太姬·朴純福) 4—0 一女(高久)

【一般道對抗庭球】 ◇

【第一回戰】【平南】勝【全北】

李鐘淳·金泰植 4—0 朴春雨·李春德
徐周善·李昌龍 3—4 朴允本·岩村
高泳洙·韓成春 4—3 林成根·朴允成
第二라운드 金泰植·李鍾淳 2—4 朴允本·岩村
韓成春·高泳洙 3—4 朴允本·岩村

【慶南】勝【京北】

曾我·李在洙 4—0 金永沃·朴星熙
黃河·野田 4—0 金鐘元·金鐘淳
古屋·男谷 2—4 崔相甲·金龍澤
第二라운드 曾我·李在洙 3—4 崔龍甲·金鐘淳
第三라운드 黃河·野田 4—2 崔龍甲·金鐘淳

【慶北】勝【咸南】

林東淳·邊鐘洙 1—4 金鐘丁·金連熙
林在洪·能勢 2—4 天兒·長島
羅錦玉·士井 4—2 劉在德·鄭在相
第二라운드 羅錦玉·士井 4—2 金連熙·金鐘丁
第三라운드 羅錦玉·士井 4—3 天高·冠辰

(以下三面에繼續)

豐信商會 穀物貿易及委託賣買可鳴取引 電話光化門一八二六番

求職案內 本校生徒의就職旅行에 京城府內 安東驛附近 敬文堂

◉朝報案內

製粉所讓渡 府內有望製粉所를 讓渡함 十字角天興商店 交涉하시오

數物職工 希望者는急募 京城鍾路四丁目

女教員及事務員募集 京城府嘉會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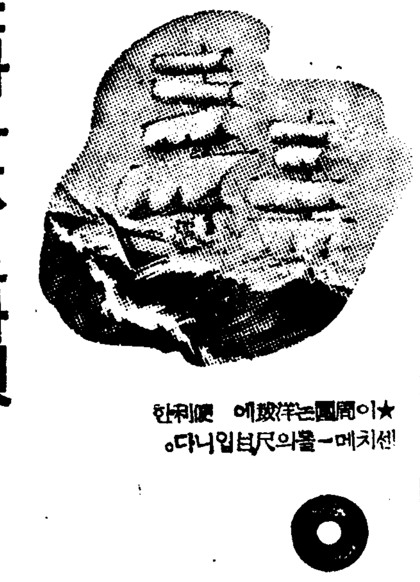
生徒募集 開拓運轉 自動車學校 京城府

外務社員採用 明治生命京城支店

世界標準型 蛇の目ミシン 자노메미싱

또하나不足한것…

火災에도保險… 生命에도保險… 그리고또하나… 미싱은生活의 保險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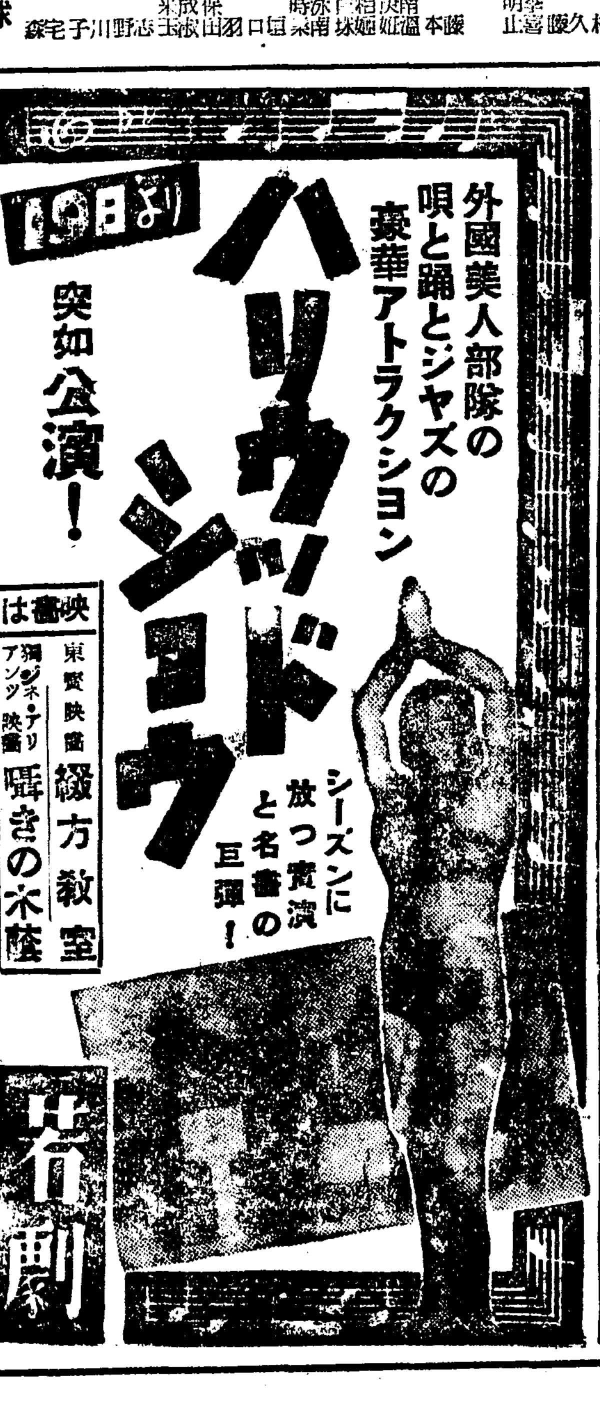


이商品은洋服에便利한 세치메一불의尺目입니다

洋裁講習無料教授 月賦方法과 說明書送呈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一丁目八十五 電話本局四四七番 振替京城二八二九五番

全國直營分店 七十五個所 本社 東京市日本橋江戶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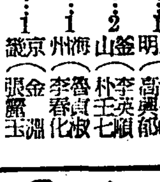
19日より 突如公演!

外國美人部隊の 唄と踊とジャズの 豪華アトラクション ハリウッド・ショウ

シーズンに放つ實演と名畫の巨彈!

映畫は 東寶映畫 綴方教室 獨逸映畫 アンナ・ジネ 囁きの木蔭

若草劇場



藥種商受驗講義錄

藥劑師試驗을 受驗하는 者의 藥種商이 되는 唯一한 捷徑이다 ◇東京市牛込區日本藥種商敎育會

良書目錄 ◇文藝·哲學·敎育·社會 ◇法律·經濟 其他 早大グランド坂上 原田書店

KONG-GO KONG-GO KONG-GO

神經痛·류마치스治療劑 ネウロジン (金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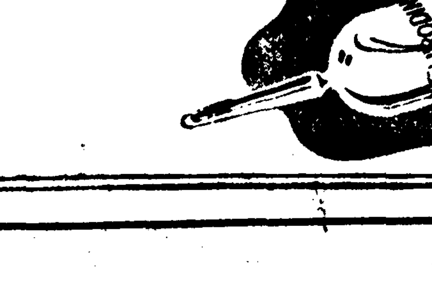
本劑는 五%부로ー무마구네시움을主劑로하고 此에純葡萄糖을高張性으로配合한無色透明滅菌靜脈注射液이다

【適應症】 神經痛、류마치스、肩痺症、腰痛、神經衰弱、氣管支喘息、胃痙攣、姙娠阻惡等

【包裝】 一〇cc五管入 二〇cc五管入

各地藥店에서買入하실時는반드시「金剛製藥 네우로진」이라고指定하시고萬若品切中이면直接本店으로用命하야주십시요

製造元 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一ノ五七 電話③三五二·四八六一·二七〇一



N.K.2.

漫畫文

新秋유ー모어讀物特輯号

유ー모어小說陣容

돈모으는법●朱耀燮
밤고양이●盧子泳
車夫의딸●李根榮
百萬圓●李瑞求
藥水와장님●柳致眞
萬里長城●崔鳳則
妓生의手段●申不出

結婚倦怠期의畫話集★

爆笑! 名士수수꺼기 유ー모어方言 때는정히가을 秋夜漫談

苦笑! 유ー모어까십 文壇人往來 金剛山中 一人一話其他

小市民生活·徐光霽

漫性自殺病患者

감보의 戀人目錄

25전

京城府西大門町一ノ七〇 漫畫文社 振替京城11.821

生活用品과防寒具 暴騰또暴騰의一路

食料品被服品燃料의順序로 非常時下平壤府民에脅威

【平壤支社發】 치운겨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업는 대중에게는 곤난하다 심하고도 위협적인기절이다 그러나 그곤난이 금년가티 심각한해는 드물것이다

쌀값, 옷감을 위시하여 모든물가는 물가가격취체령이 나리지안흐면 안되리만큼 폭등을계속하고잇슴은 주지의사실이거니와 그중에도 동절용품(冬節用品)은 박한구에서 연료에 이르기까지 일층 사정업시 앙등의일로를 밟고잇스며 그나마 돈을 암만가지고도 살수업는 필수품의 종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이제닥어오는 겨울을 압두고 이러한 상태를 살피여보면—

食料品 (김장감식료품이란) 온갓문제로하고 조선가정마다 불가분의관계에잇는 「김장감」의 폭등은지나 농인의감소, 야채의 부작등때문에 예상외로심각하여 배추한통에 작년에 십전가격의 것은 이십전, 무(大根) 이전이내 이던것이 사오전 더욱이나 김장에 뿐아니라 고추장의 원료로서 가미료(加味料)로서 업지못할 고초는 북지에서나오지 못하는관계로 작년한포대에 삼원하던것이 륙칠원의 갑절가격이다 이것도현재가격이고 이제 김장때에 다달으면 한층뛰여오를것은 예년에보는바와 마찬가지일것이다

被服 치위를 막어줄 옷을 비롯한 박한품은 어떠한가? 위선 목화(棉)는 작년에한근 십오륙전의것이 십칠팔전으로 별로 오르지도안햇스나 품귀때매의 철저로도 돈가지고도질 대로잡을수 업는형편에잇고 솜(綿)은한근에작년사원오십전의 것이육원사십전으로 올랏다 광목(廣木)상목(上木)등의대중적 직물은 돈으로주고도업스나 사려면작년에 육원내지팔원하던 것이 지금은 이십오원내지삼십원의어천난 갑이다 메리야쓰 내복한벌에 이원칠십전하던것이 삼원팔십전으로 뛰여 박한화 오륙십전하던것이 일원이삼십전으로 뛰여올랏고 양말까지 한타일원칠팔십전하던 대중용품도 이제는 이원오륙십전으로되엿다 목도리모사 모직물등이 오른것은 안사고 참는다 하여도 다

燃料 따히 치지안케 장수잇스리만큼 비싸진 나무(薪)한단으로는 부족하지만 한단에도 사십오전이나 하는바 작년에는 이십팔전 밧게 하지안던것이다 「장작이」한판에 육전하던것이 구전으로 숫(木炭)한판에 일원이십전하던 것이 일원팔십전으로 오른것은 조선사람이 고히탄다는 석탄원이 된것을 지금이십이원에 사고 ... 런도 룸속으로 지금은 돌라도 업는데는 구할수조차 업스리 만하니 못가만하여도 찬소를이 못논소식이다

물가취체령이 이천정도르는 물가를 어느정도로 「취체」하여줄려는지는 이겨울의파제이다

求之不得의困難

그中에도住宅難尤甚

벌써 팔구가량된 겨울에 업지못할 모든물건이 이삼할이상 심한것은 갑절이나 올낫고 그중에도 목화(綿)목 삼목 순메리야쓰와 석탄등은 돈을가지고도 구하기가 어렵게되엿고 더욱주택난(住宅難)은 일층심각하여 세방구하기는 실로곤난할뿐아니라 간신히 구하여도 너머나 엄청난집세에 물가를 주저하게될형편이다 이러케 물가의폭등은 놉파만 가나 일반의주머니는 여전히쓸쓸한 사정가운데겨울은닥어온다

旱災로米作被害 五百卅萬圓巨頭

全南被害面積三萬町步

【全南支社發】 금년에들어 전남은 춘추각종농작의 파종시에는 우량이상당하엿던만큼 금년의풍작을 예상케하드니 의외에도 한재가 계속하야 그피해정도는 각농작물에잇서 심각하다함은 본보에 누보하엿거니와 전남도작의피해 조사에의하면 금년총경작면적 십구만륙천팔백팔정보에 대하야 피해면적은 삼만삼천이백이십오정보로써 그피해총액을 환산하면 오백삼십팔만삼천칠백팔십구원이라는데 피해정도가 오부작 이하면적이 일만이백삼십구정보이며 삼부작이하가 구천일백구십구정보이라는바 각군별피해면적과피해액은 다음과갓다

府郡名	被害面積(町)	被害額(圓)
光州	四五六	二七、三七六
木浦	九	二、〇一〇
光山	一、六七三	三三、一〇〇
潭陽	三三	[illegible]
谷城	一四八	三、一〇〇
求禮	[illegible]	[illegible]
光陽	[illegible]	[illegible]
麗水	[illegible]	[illegible]
順天	[illegible]	[illegible]
高興	[illegible]	[illegible]
寶城	[illegible]	[illegible]
和順	[illegible]	[illegible]
長興	—	—
康津	[illegible]	[illegible]
海南	[illegible]	[illegible]
靈岩	[illegible]	[illegible]
務安	[illegible]	[illegible]
羅州	[illegible]	[illegible]
咸平	[illegible]	[illegible]
靈光	[illegible]	[illegible]
長城	[illegible]	[illegible]
莞島	三一	[illegible]
珍島	[illegible]	[illegible]
濟州	—	—
計	[illegible]	[illegible]

더니 일기가 급변하여지자 지난십사일밤에는 처음으로 서리가와서 찬기운을 더욱재촉하므로 일반은 겨울준비에 분망하여지는모양이다

開城簡保相談所도

十五日開所式盛擧

【開城】 개성우편국 간이피보험자는 현재 일만육천을 돌파한 중 보험계약고가 삼백이십오만원을 돌파해서 전선에 보기드문 호성적을 나타내고 잇는데 금번간이보험자에게 진출의하야 우편국에서 개성간이보험건강상담소(開城簡易保險健康相談所)를 신설하고 봉인간 사무를 진행키로된바 지난십오일은 편민배여명이 참집한가운데 우편국 ■■정원에서 성대히개최되엿섯다 경성체신분국장(京城遞信分局長)의축사를 비롯하야 개성부윤(宋府尹)개성상공회두 도회의원 대표등의 열렬한 래빈축사가 잇섯다 그리자 소연(小宴)을 떼풀어 희기에에리에 (■잔을 놉히들어 동소의발전을 축복하얏다

箕城書畫展覽會

平壤白善行記念館에서

古都에벌려진藝術의가을

【平南支社發】 소연한시국정세가운데 세인은 흔히 예술의 가을을 잇기쉽지만 이런한때에야말로 인정미의 아름다움을보지하기위하야 한갓 예술을사랑할것이아니냐?하여 평양의 서화연구동호인으로서 조직된 기성서화구락부(箕城俱樂部)에서는 그두번재의 「기성서화전람회」를 본사평양지사의 후원하에 일중대규모로 열기로되엿다 오는 십륙, 칠양일(매일 오전십시부터 오후오시까지)백선행기념관에서 열리는 동전람회는동구락부원들이 지난한해동안 심혈을 다하여 제작한 주옥의서화수백점뿐아니라 세상에서 숨기여잇던 역사깁고 이름노픈 비장의고서화명작도다수 특별진렬되리라고하니 회장에모고할능통양정취는 『예술의고도』의 『예술의가을』다운 가상할만한것이라할것이다 (사진은 진열품의한가지)

長淵邑聯青結成式

【長淵】 장연군장연읍(長淵郡長淵邑)청년단에서는 읍내청년을시국에대한 재인식을 기피이식시키고 심신단련재의관념을 강화시키기위하야 읍내청년들을모아오는십오일에 장연보통소학교(長淵尋常小學校)전에서 청년단결성식을 거행하는데 그준비에분망중이라한다

十餘萬圓債權抛棄

松本耕一郎氏壯擧

【馬山】 서천의유지들로조차 궁상에달한농민들의 채권십여만원을 포기한 이가잇다 경남진영(進永)의송본경일랑(松本耕一郎)씨의부친이송본신태랑(松本新太郎)씨는 지난구월삼십일 고향에서 별세하엿는바 인연기푼 조선에 유골을안장하고저 지난십삼일에 진영고야산상회농장(高野山商會農場)에서 고별식을 거행한바 정각전에제한태리빈과 회장자가사천여명에달하는 대성황을이루워 식을요한후사자인송본경일랑씨는 엇진의유지에의하야 김해(金海)창원(昌原)밀양(密陽)등삼군에 산재한다수 농민에게대한 채권십여만원을 포기하야 근래에드믄장거에 일반은 칭송이자자하다

湖南銀行異動 (十四日)

東萊支店支配人 張日煥
依願解職
長城支店支配人代理 李■模
命東萊支店支配人代理
寶城支店行員 鄭鎭求
命長城支店支配人代理

農牛增産對策으로 耕牛十人稧組織

郡農會서一稧三頭式貸付

【春川】 농사(農事)의 원동력이 되여잇는 농우(農牛)의 상황은 참으로 농가에잇서서는 긴요한 일인데 이에 당국으로서도 박라를가하야 목적을 신속히실현시키고저 경우십인계(耕牛十人稧)를 조직케하야 한계(一稧)에 암소삼수식을 군농회(郡農會)에서 구입대부하여 이로 영농에 사용하고 일방 번식을시키켜 오륙년후에는 대부해단농우는 군농회로 돌려보내고 번식한농우를 게원(稧員)들이나누어 가지게의소유로한다는바 그계획한 계수(稧數)만도 삼년간에 삼백을 돌파한다고하며 일반농가(農家)에서는 상당한기대를 가지고잇다고한다

天安에첫서리

【天安】 충남천안지방에는 근일 기다리지안턴비가 수일을두고오

스포-츠

【培材中學】
WF 植源成韓弘烈昌男　　 HB 　 TB 　 FB
(선수명단)

培材連覇 養正軍憤敗

中等럭비-界의 雙璧인 培材와 養正의對時는 事實上全日本中等界의 覇權다투는 터이라 白熱的 人氣속에 十六日 午後一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根本氏 審判下에 培材의킥으로 開始한바 熱戰또熱戰을거듭하더니 前半戰 無得點으로 마치고 後半에 드러가 培材軍리-드하야 連覇하엿다 (寫眞은 培材軍)

培材 8 (0…0 / 8…0) 0 養正

國際式卓球에 培材崔君制霸

國際式卓球男子選手權試合은同日午前十時부터 大藪體育館에서 열리바 日本式中等部에서 連覇한培材의 崔根恒君이 諸強을물리치고 堂堂히 優勝하엿다

【第一回戰】
周鍾洪(京城)2…0金 進(京城)
朴鍾植(京城)2…0金成煥(京城)
高庠鎬(京城)2…0樋口(京城)
朴鍾植(京城)2…0全嚴植(平南)

【第二回戰】
周鍾洪(京城)2…0閔寬植(京城)
元貞淳(平南)2…0金珍八(平南)
李在雨(京城)2…0大野(京城)
崔根恒(京城)2…0佐久間(京城)
金甲淳(平南)2…0李用煥(京城)
高庠鎬(京城)2…0金根源(京城)

【準決勝戰】
周鍾洪(京城)2…1元貞淳(平南)
朴鍾植(京城)2…0李在雨(京城)
崔根恒(京城)2…0金甲淳(平南)

【決勝戰】
朴鍾植(京城)2…1周鍾洪(京城)
崔根恒(京城)2…0金甲淳(平南)

崔根恒 3 (2 1 2 1 2 1 / 1 0 5 5) 0 朴鍾植

中等籠球

【準決勝】
協成實業 29 (11 18 / 5 8) 13 養正中學
(審判…李性求, 金容九兩氏)

反	後	前	【協實】		【養正】	前	後	反
2	4	5	韓晉熙	F	張琪永	2	2	1
1	4	2	林周榮	F	金鶴	2	0	0
0	0	0	林允璉	F	李鶴九	0	0	0
1	2	4	尹忠獻	C	鄭源植	0	0	3
0	0	0	李翰熙	G	朴相培	0	0	2
2	8	0	金成泰	G	安明住	4	3	1
6	18					8	5	7

明日의運動

▲軟式庭球=神宮大會男子一般選手權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コート)
◇同男子中等校選手權大會 午前九時(奬忠壇コート)
▲排球=高專, 男女中等, 一般各部決勝 午前十時 京城運動場
▲籠球=男女中等及 一般部決勝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陸上=第七回全朝鮮陸上競技選手權大會第二日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軟式野球=各道對抗決勝 午前十時 奬忠壇球場
▲野球=中等準決勝 午前九時一般部全仁川對釜山 正午 全大邱對平實 午後三時 京城球場
▲女子軟式庭球=府內女子中等校(大千五百名出動) 京城運動場
(以上體育祭二十日, 學生十日)

國際卓球複式

◇複式第一回戰
周鍾洪 高庠鎬(京城) 2…0 閔寬植 佐久間(京城)
金成煥 金義根(平南) 2…0 李用煥 李在雨(京城)
金甲淳 元貞淳(平南) 2…0 金珍八 張德奎(平南)
李在雨 金相赫(京城) 2…1 大野 河邊(京城)

【第二回戰】
周鍾洪 高庠鎬(京城) 2…0 崔根恒 金德洪(京城)
崔根恒 朴鍾植(京城) 2…0 竹原 佐野(京城)
金相赫 李在雨(京城) 2…0 元貞淳 金甲淳(平南)

【全南】 嚴達錫 趙章南 4…1 吉田 矢仁 【京城】 勝
李聖鎬 文德鎬 0…4 朴龍善 瀬戸
孫原寬 申永澤 2…4 黃在仁 權福成
【平北】 文在明 金巨鉉 4…1 成炳文 孫鐵星 【京畿】
金益善 李鳳韓 1…4 全泳俊 李在用
鄭在律 梁在律 ×…× 柳大烈 朴正龍
【江原】 黃樂秀 崔利萬 4…1 崔今村 有用 【忠南】 勝
金洙培 金在鎬 4…1 姜大寬 金根培
朴大善 崔炳俊 4…2 韓永祿 李裕鍾

道對抗庭球

◇中等部決勝
邱商 2…0 中 3…0
善隣 2…0 文 0…3
徽 2…0 (各試合)
15…1 3A…0

硬式野球

京城師範 27 (6 2 1 / 5 4) 9 京師中學
(審判…林東洙, 丁相允兩氏)

反	後	前	【徽中】		【京師】	前	後	反
2	0	2	朴漢洙	F	邦德元	0	0	0
0	0	0	朴炳鎭	F	金相鍊	0	0	0
0	4	0	姜重植	F	羅五鳳	1	0	0
				F	邦德民	0	4	1
1	0	0	金南鎬	C	金康八	5	0	0
				C	李敏衡		1	0
0	0	0	文德周	G	川本	5	1	0
	1	0	朴樂遠	G				
1	0	2	崔炳植	G	松田	0	0	1
3	5	4				21	6	2

反	後	前	【徽新】		【養正】	前	後	反
2	0	2	鄭炳旋	F	吳相鶴	7	1	0
0	2	0	金致敏	F				
0	5	2	金翔祐	F	金光洙	3	7	3
1	5	2	黃材三	C	李聖相	0	0	1
2	0	0	權弘濟	G	安鍾泰	0	1	1
3	4	0	張元一	G	申相鶴	2	2	3
8	16	6				12	11	8

養正中學 23 (11 12 / 6 6) 22 徽文高普
(審判…田鍾德, 安昌■兩氏)

反	後	前	【平三】		【光成】	前	後	反
2	4	0	南時龍	F	吳天錫	4	2	0
2	7	3	金熙洙	F	宋仁善	1	6	2
1	2	3	尹龍鎭	C	韓昌杰	0	1	2
2	0	5	李成業	G	李元植	1	2	2
				G	金保和	0	0	4
2	1	2	朴炳燁	G	李聖柱	2	0	2
9	14	13				8	11	12

平壤三中 14 (14 12 / 11 8) 19 光成中學
(審判…李文燦, 鄭■■兩氏)

三好クリーム

살결을곱게하는
삼호크림은 얼굴에발라서 더흰살결을만들어주고 윤기를 내여줍니다
조선사람의 살결에 맛도록 만든 三好크리-ム는
살결에 ● 화장밑에 ● 面刀後에

三好水白粉 三好頰紅
三好煉白粉 三好口紅
三好煉白粉 コリア石鹼
三好化粧水 三一石鹼
三好香油 猿林石鹼
三好香水 本社製品
三好固煉白粉 五十餘種
三好ポマ-ド

京城府■■町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一七二七番
振替京城一五九五八

十八日封切

清き都の子女の涙を絞つた若く美しき母か慈母の戀と愛の二重奏!
愛染かつら 前篇 後篇

問題の名畵
問題の名畵 好評を得て
M・G・M 超特作映畵と
同時續映!
京日 朝日 讀賣 パテー
世界發聲 ニユース
早朝十時開場十一時開演

M・G・M超特作映畵
南海征服
詩のタヒチ島に暴るゝマーロンと荒れ狂ふ南海の怒濤と闘ふ過ぎし男……男が男であつた時代……
主演 クラーク・ゲーブル フランチョット・トーン チャールス・ロートン
女性の魅力を持つ女の大映畵
明治座

生徒募集(第五回)
入學願書締切 十一月五日 (郵便切手三錢)
平壤測量講習所
開學 十一月十一日
平壤府上水口里 (電話四六二八番)

傷
療化膿 부스럼 데인데 베인데 즉효
本舖 大阪瓦町 中井一馬藥房
上記의各症에는
ゆうくすり 大阪瓦町 유구수리

● 感嘆!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 이다 ●

本報水原支局
電話一五二番

最新強壯劑 フェロトン

易容服用・佳芳味美

食慾을增進케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昻進함
本劑는 現代學理에基한 綜合的強壯劑로써 チオコール을 主成分으로하고 吾人의 日常生活에可缺하면 아니될 鐵 マンガン ナトリウム 燐等이 包含된外 高貴藥人參 淫羊藿을 加하야 補精強壯에 新方途를 開拓함

長
1、結核菌에 直接…
2、特殊『엔치-ロ』의作用에依하야 病原菌의 蔓延을防止함
3、咳嗽와 痰을 緩和減少케함
4、赤血球沈降速度를 正常케함
5、微熱을降下하고 食慾을增進케함

適應症
肺結核、肋膜炎、急慢性氣管支カタル、萎黃病、貧血症、腺病質、神經衰弱、ヒステリー、食慾不振、一般衰弱症、產前產後、重病恢復期。

說明書試供品贈呈 (各地有名藥店販賣)

發賣元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平壤

ウテナ バニシングクリーム
(雪印)
우테나 바닛싱크림

強力な美肌素がお肌に滲透する
強力한 美肌素가 살에 滲透한다

살결을고르게하는데는 粗悪한크림은아무効能도업습니다。質이거칠고 살에발러보면 끈적거리고 밀리는것은 粗悪한것입니다。
ウテナバニシング는 純白하고質이細密하며 바르면 살속으로 사르르 수며듭니다。그리하야 強力한 美肌素가 皮膚深部에 滲透하므로、皮脂의分泌機能을 活潑히하며 新陳代謝를旺盛히하며 여드름、뽀로지를防止하고 色白의健康한 젊은살결을맨듭니다。

化粧下에理想的입니다
가을에適合하게 清新한化粧을하시는데는 먼저 化粧크림의 選擇이 必要합니다。ウテナバニシング는 살결을고르게하고 化粧이잘먹는 젊은살결을맨드러줍니다。淡化粧下에 쓰시면白粉이 훌륭히곱게먹고 놀라웁게 오래갑니다。

純質無脂肪性
★入浴洗顔後에! ★外出의前後에! ★거친것豫防에! ★面刀하신後에!
國產最高
正價 四十전 七十二전

第一劇場
十月十七日부터 三日間特別興行
名畫封切奉仕週間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一時 二回■時 三回七時半
RKO라디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早坂 라-다ー스監督
大空地獄
제스타ー 모리스 주연
후잇드-이 룸스 主演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
CC 글-만 監督
流彈의사스街道
자-루스 라렌스
미리암 홉킨스
스-리 스다렌트 共演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宋本英明監督
嘆きの母
本郷秀雄 水島光代 主演
五月信子 坂本武 河村黎吉 ■■■
與へよ國民の唱ひ南海征服近日封切
電光 一七五五

日活
將軍の山お 大漁 火の影 ニュース
十月十六日ヨリ 十月廿一日マデ
パ社 お山の大將
松竹提供 漁火
アトラクション
ニュース
日活 影法師 闘の
10・00 11・00 11・45 11・55
1・15 2・30 3・40 4・15 4・25
6・00 7・15 8・25 9・00 9・10
アトラクション 連日連夜 超好評のコガネダンシングチーム出演 コガネバンド伴奏 午前十時マデ入場者30錢均一
東亞座

中央館
每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電話 ■■■
大每ニュース
大岡越前守 八 女 日 記
主演 子久那樋・童佐岡大
主演 ジョーイ・ブーラウン
ブラウンの千兩役者
主演 九三昌山衫・男州九部岡
三 家 三 勇 士
十六日ヨリ 十九日マデ 四日間
本週ニ限リ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松竹キネマ
18日ヨリ 上映時間表
	1	2	3
ニュース(A)	10・00	2・14	6・40
南海征服	10・22	2・36	7・02
ニュース(B)	11・37	3・51	8・17
愛染かつら	12・00	4・14	8・40
開演時間ヨリ早朝割引まで
明治座

團成社
電話 三四九二番
1 「沈清傳」 朝鮮キネマ作 十五日ヨリ 料金 大衆的十錢
2 「天國と地獄」 サンフィルム社提供 全發聲日本語版
3 「モンフィルのGメン」 ロイドの 全發聲日本語版
4 「ベンガルの■王」 サンフィルム社提供 合同映畫社 全發聲日本語版
5 「아리랑」 朝鮮キネマ
6 大阪每日 パラマウント ニュース

學生페ー지

詩學徒의覺書
◇―鄭芝溶論에代하야―◇
立敎大學 尹泰雄

바다는 뿔뿔이
달어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가리
재재 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안헛다. (바다)

芝溶의 의『바다』라는 詩는 太古에 바다가 創造되는 光景을 懷古하는 詩가 아니라 現實로서 印象하고, 現實로서 感覺하는 詩다. 自然科學의 宇宙生成의 歷史過程을 說明하는 긴論文에 지지안케 우리는 이러한 詩人의 어려한 짧막한 詩한篇을 信賴하고, 오히려 感謝하게까지 생각한다. 芝溶의 詩에서 느끼는 기쁨의 하나는 이러한 모든 內部的實在의 正確한 感覺이다. 茫然히 생각되는 一切의 實在가 貴重한 말로서 誕生되는 그瞬間―벌써 그것은 이詩人을거처 우리의 現實로서 나타나고 우리의 皮膚나 血液처럼 具體化되며 우리의 生의 豊富한 資源이 되는것이다.

바람속에 薔薇가숨고,
바람속에 불어깃들다.
바람에 별과바다가씻기우고,
푸른 뫼뿌리와나래가솟다. (바람)

여기에 잇서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바라보는 周圍의風景―한그루 나무나, 한송이꼿 포기까지라도 芝溶의 感覺을거치는때는 그모든 實在들은 各各 自己의 精神을 지니고 自己의 生成을 發言할 權利를갓게되는것이다 無心어 서잇는것 가튼 나무 하나라도,

오오 알마즌位置, 조흔 우아래
아담의 슬픈遺産도 그대로바뒷도다
나의 적은 年輪으로 이스라엘의二千年을 헤엿노라
나의 存在는 宇宙의 한낫焦燥한汚點이엇도다
목마른 사슴이 생이을 차저 을 잡그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못박히신발의聖血에 이마를적시며―
오오! 新約의 太陽을 한아름안다. (나무)

太古쩍 自然의 浪跡이 그대로 남어잇는 露西亞를 다녀와서 라이너·마리아·릴케가 말하기를 現實이란 참고기을는 사람에게만이 가까이오는것이라고 우리들의 課題는 眼前의大地와 自然을 기꾀 苦難하고, 情熱로서 追憶하고 印象하는것이라고―이러함으로써 우리가 數千年過去와 오늘의持續이 永遠한未來에서서오늘의使命을다할수잇는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므로 芝溶이 가톨릭은 二千年教養에서 出發했노라고말하고 自己의 한개가톨릭의 信徒인것을 告白할때 벌써 그의態度만은 적은 懷古主義者도아니요 偏狹한宗敎信者도아니요 現實의 逃避者도아니다 모든文化가 破壞되고 아메리카的인 機械文化가 世界를 征服하려는 어때에 어떤混亂속에서 그는 文學이 가톨릭的 信仰과 秩序에서는때만이 어떤 克服할수잇는것이라고確信한다 機械文明을否定하는것이아니라 克服하는것이다 그는 또 언제이든지 忠實한市民으로서 行動한다 하루에 열時間 일하고 꿈가튼 이야기는 꿈속에서도 아니하려는 忠實한市民으로서 聖賢하지만은 언제나 이詩人은 市民的인束縛에서 解放되기를 願하고잇는것이다 그러므로 絶望과不安속에서 몸부림고 어려스기를 얼마나 헷튼지 모른다 언제던지 코스모스의 世界에 端正한 깃을가지을하고 소는것이다 그러므로 詩人 鄭芝溶만큼 現代에 잇어서 밝은 面을 가진 文學者도 드물것이다 그의詩篇에서 斧鉞的인 淸澄과 健康까지를 우리는 차즐수잇다 그러나 現代에잇어서 鄭芝溶은 斧鉞사람보다도 얼마나더한 決意와防衛를함으로써이러한것을 가질수잇섯던가 생각할때 우리는 감사하지안흘수업다.

庭園의가을 (詩)
京畿中學 崔載亨

코스모스 핀 庭園엔 가을의 寂寂이 누어 하품을하고
孔雀이 푸르른 꼬리를 펴고 먼을 피우는 正午―
풍로 꽈리 소리……
蟋蟀을 근심된다.
깁프른 못속엔 九月의 太陽이 금실거리고
水面엔 落葉의 낫장이 길
와아란 하늘이 그리워
작구 치솟는 噴水―
물흐진 차거워 水銀방울처럼 나동그라진다.
힌 旅人별이 걸 걸……
오늘도 墻頭에 떠든 鄕愁,
잔디밧테 누어 회파람만 분다.
―德壽宮서―

花園春秋
世田谷中學 朴珉鎬

A 海棠花

하이한 白沙場우에
빨아간 海棠花꼿―
파랑새 파랑빗 처럼 化粧하고
노랑새 노랑빗 처럼 化粧한 적
봄
종달이 알까는 시절부터
海棠花는 戀愛를 배웟다.
밤마다
波濤소리에 듣고 깨는 잠―
꿈은 落花 그림자에 슬품을 안고…….
사랑이 밤人별처럼 한두 흔해서
海棠花 입입은 情熱에 저첫다.
조갑지 人魚
바다의 傳說이 숨은꼿―
얼지러지는 海峽에 집이나서
열매 열매는 海岸에서 떠낫다.
陸路二千里 호리진 傳說이 아주슬퍼서
오오 한밤에 海棠花는 눈물이자젓구나!

B 玉簪花

설가에서 자라난 孤寂한 靑春은
淸楚한 그衣裳이 보고 십퍼나부다.
黃昏길에 裂裂를 수한 젊은女僧여
玉簪花 수집어 거우린고개를 살포시들고.
날롱래 차저와 心思를 돌 靑春이잇스니
玉簪花야 그密語의 마디마디를 追憶하여주려마!
水晶人빗 念珠알처럼 透明한 追憶에,
꼿香氣처럼 풍겨나는 肉體는 몸서리첫다.
이슬방해 하로밤식 자고난 玉簪花야,
밤이면 접동새도 울어주지 안는냐!
念珠알 돌아가는音響엔 山골도 寂寞해,
사랑이 불어질 입人가엔 念佛이 처량하다.
淸楚한 옷자락에 肉體를 휘감고
蓮닙처럼 깨끗한 香氣를 풍기는 玉簪花야!
아무리 사랑이 爛漫한 花園의 季節이라일 우자
그래두 山골의靑春엔 傳說이 슬프게 흐르니
오오, 당장머테 茂盛한 淸楚한玉簪花는 孤寂한靑春을 기달여 한조일 그속에 숨엇단요.

『新精神』의未來
―抽象繪畫와純粹主義―
=紹介論文=
日本美校 趙五將

前衛繪畫行動에잇서서 抽象派은 立體派以後의 일이다. 立體派가 自體가 여러가지 傾向을 包括하고 잇스면서 그影響과發展과는 따따이즘이나 슈르레알리즘, 그 外에 現代의 여러가지 새로운 樣式에까지 이르고잇다. 그리고 立體派에는 또한象形的인 追求가잇섯다는것이다. 藝術이가진 抽象的인傾向은 現代藝術에 脈動하는 가장커다란 特徵의 하나이다. 一般的으로發展은 抽象藝術만이 아니고 何學的이라고 말하는 抽象的要素는 藝術의 歷史와가려 存在하고잇스나 이것이 明白히 抽象主義的 意識으로써 생겨진것은 純正立體派가 外部的自然分析의 綜合에서, 出發하얏以上 當然한 歸結인것은 事實이지만 이가운데의抽象的追求의 傾向이 한層더一層熱烈해잇서 所謂非象形的인 藝術에까지 展開되엇다. 오늘날의抽象藝術이라고 부르는것은더―말할것업시 이러한傾向을包含하고잇다. 抽象藝術에는 두가지主要한『잔―누』를가질수잇섯스며 最初의 가장重要한傾向은『세산―누와수다』의理論에서 立體派를지나 世界大戰 가운데 露西亞와 和蘭에서 發展한幾何學的인 構成主義運動으로써 代表할수잇는것이다 第二의 傾向은 고―간의藝術과 理論에서 出發하야 마티쓰의퍼―비이즘에서 大戰前의간딘스키―의抽象的表現主義에로 옮겨진것으로 슈르레알리즘의 一部作家와關聯됨으로써 새로운勢力을가지고잇는 것이다 前者의傾向은 知的 構成的 建築形態的 幾何學的 直線的이며 그論理性에의 依存과 嚴格함에잇서서『古典的』이라고 말할수잇스며 後者의傾向은 어것에對하야 直觀的, 感性的, 有機的, 生理形態的, 曲線的이고, 構成的이라는이보다는 裝飾的이며 그神秘性, 自發性, 非合理性等을 强調하는데잇서『浪漫的』이라고할것이다 우에말한바와가티 抽象主義의 特徵은 單一한것은 아니다 이것을 超現實主義와가티比較的單一한이즘으로써 發生或은分散하야 再認識되고잇는것과는달리 各各特徵을가진여러가지 이즘이 歐羅巴各國에서 追求되고 그것이『抽象藝術』로써 綜合性을가지고 再認識되다는것으로써도 엄수잇는것이다. 勿論 이두가지의 對照는決코 絶對的인것은아니지만 적어도 現象的으로 眞實이라고는 말할수잇슬것이다.

여기에 나는歐羅巴에分散된抽象派藝術가운데에서 雜誌『에스프리·느버―』를 通해우리 들의生活과가장가까운『빼유·리즘』를 생각해보기로하며 어에, 未來를粗描해보기로한다.

×

아메데·오산판과 잔누레―는共同으로써雜誌『新精神』(에스프리·느―버)를主宰하야 所謂純粹主義(푸리즘)를一九一八年頃에提唱하얏다. 잔누레―가 루·코르뷰제―의別名으로써 佛蘭西新興建築의建築家라는것은더―말할것도업는일이다 그들이 提唱한이러한 運動은 純粹詩와는다른『歐羅巴의어느日常的인 對象을機械的으로써 描寫하는것을主張하고色彩와 프리즘과가티單純하고淸明한것이엇다 이것은 도리어 그의밖으로幾何學的인 建築에適合한 樣式的 純粹의 것이엇다. 最近에 이르러 그의그림은純粹主義時代와는 주연달리 피카소와가튼 樂地로드리와 잇다. 建築樣式과 繪畫樣式을 一致시킨다는것은 結局 어려운問題를갓는 것이다. 現代建築이 機械에從屬하는以上 그러한 合理的樣式으로向하는것은 當然한것이라고는 생각할수잇다. 또한 建築은 永續的傾向을取하나 裝飾과繪畫는流動하다 여기에 새로운裝飾의問題는 提起되는것이다. 그의設計한 巴里의어느百貨店의 家具裝飾에다 일부러『로코코』的인것을 使用하는것은 合理的인 幾何學的現象이라고 볼수잇다 …제―』는 獨逸의『빠우허우스』와 가튼立場을 佛蘭西에서 佛蘭西的으로 차지하고 잇는그들이 機能主義者이란 點으로써 그러한것이다 오산환은 最近 理想論이지만 繪畵의 機械的 製作이란것을 提唱하고 잇다 레코―드 까지는 이르지안어도 (도한版畫나 複製와는다른 意味로) 새로운 創作技術과 鑑覺의 面積이 發見될지도모른다 빠우하우스의『그로삐우스』가 하바―드大學敎授로써 招聘을밧고 시카고에서『斤―바우하우스』를 創立햇스며 여기에 모호―리난기―가 主宰하기로됏다『프리그마·뭐』한米國에서 빠우하우스의 構成敎育이어떠한 結果를매질것인가 興味를 가지고期待된다

詩 아우의印像畫
延專 尹東柱

붉은 니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여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발거름을 멈추어
살그먼히 애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혼 진정코 설혼 對答이다.

슬며―시 잡엇든 손을 노코
아우의 얼골을 다시 드려다 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니마에 저저,
아우의 얼골은 슬픈 그림이다.

―콩―트― 劣等生
延專 鄭廣鉉

『응―이게 대체 다― 무슨소리여』
하마터면 이소리가 입에서 쏘다저 나올번햇다.

그도 그럴것이 학교에 아침마다 가기에는 한달이면 보통 반이상을 지각하는 철(哲)이로써 이렇게 일쪽암치 더구나 공일날 일곱시반부터 도서관엘너 도나오여니때는 한번도생각도 안는친 구들이 눈이벌개지고와서로 얼른드리가 한자래도더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뚤코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안저 여니때는 남보다 노는데 에 지지안헛지만 인제어디한번 이겨볼려는 비장한 각오를하고 두꺼운 책을 어리뒤적 저리뒤적 해보아야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겟스니 성질이남 보다도 유난히 퍽한 그 그저 아모도 업섯스면 시연스럽게책 장이래도 며장볼복 찌저저 큰 소리로 한번통쾌하게 너털웃음을 우섯슬것이다.

벼에 걸린 전기시게는 돌다 조금도안올리는 열한시반을 가르키고잇고 도서관 갈득나린업연히 공부하는것을 갓지하고잇다.

어디누가 말을하지나 안나를 직히기 위하여 그러고보니 눈 아페 〃絕對無言〃이란 국직한 글자가판쪽각에쓰여 만일한마디 말이라도하면 덤벼들것파도가리여전 두께비 아가리 가튼느낌을준다.

이런생각은 어번처음 먹은게 아니다. 그전에 중학생때 한번 이야기좀 하다 관원에 걸려서 관장실까지 가서 톡톡이 이리 저리 큰소리 잔소리를 실컷듯 고 드디어 퇴관명령서까지 밧고 나온 일이 잇슨지라 더욱 이 〃絕對無言〃이란 글자는 철이한테 시근 서근한모양다.

책은 암만 애써 볼래도 모든게 생시조는것이나 철이 재조가 남고 뛰여도 알재주가엇나.

공부시간에 좀 정신차려 뜨러 두엇더라면 조흘걸 그야암만 공부못하는 철이지만 아주 무어 선생 강의 까지 듯기실 올리 엄다. 왜그런고 하면 지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매일결석을 하지 안고 학교엘 가는것을 보면 누구나 다 철이의 마음을 집작할것이다.

암만 정신을 채려 강의를을 울려하여도 강의가 재미가 나지 언저와서 선생탓을 하는 것은 다 제잘못인지 얼지만공부못하는 철이에만 잘못이잇는게 아니다.

재미업는 강의를 글세 어째들으란말야 선생의 목소리라끈 여간조흔귀로는 아러들을수도업슬뿐더러 그나마 띔기래도 한다면 쓰는 재미에 실증이나고 정신을 가다듬어 쓰겟지만 이 거경치게도 두껍기만한 책을덕 펴노코 선생이 거길 읽어가며 무어무어라고 지꺼리니 처음에는 제발좀 들을려고 애를쓰다 가도 선생강의가 자장가로 변하 한잠이 더잘오는것을 어찌 하랴. 일로 판강의 시간에 는 맛이란 어디 더 비할데가 엄다.

! 공부시간중에 오는 조름― 아닌게 아니라 철인 지금 교실은 아니지만 도읽어도 잘모르니까 조름이 오지안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일 시험이 캣겨, 조바심이 나 자려해도 정작잠이 오지 안는다.

철학개론, 백두페지 민법총론, 이백스무페지 경제원론, 백마흔페지 도합 사백예순두페지다. 듯기만 해도 어마 어마한수짜가 아닌가.

대체 이러케 만은것을 한꺼번에 세과목식 치르자니 암만 생각해보아도 모를노릇이다. 『학생시대 청춘시대 이는인간의 일생에잇서서 제일 귀치안은 시절이다. 학생인 봉인에 잇서서는 이와가티 괴로운 시간 아니때는 사회적으로 어디로 무어로되 도지 업슬것이다』 사슬에 얼매여 잇서 그어디서 발랄한 청춘의기상을 한번발휘 해보나 이게큰 청춘의 모순이다. 이모순이 이러케밝은 일요일을 마음속으로 어둡게 맨들고 몰홍이와 환경의거리 이처 이 저금 학생의 공통된 비극이다.

『꼿다발은 장미꼿치 되엿슬때 맨들란』는 서양 어느 시인의 글과 가티 청춘시대는 제일감수성이 만코 보든지 드든지 마음이 들뜨는때다. 이것을 함부로 놀르는것은 파한것이 아닐가 〃이런 글릇을가진 수필을읽은 생각이 나 조마 조마한철이 마음을 스스로합리화 시켜준다.

여메 사람 아니 거이다 힝한 방안사람들은 모도 열심으로 읽는이에 쓰는이에 자는이에 함부로 펑장하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다섯잡자고난 누에가 뽕닙을 힘차게 먹듯 버석 버석 한다.

감히 이야기 하는사람은 하나도 업다.

그러나 시험에억매이어하는라 그러지 안너머가는책장을 억찌로넘기는것갓기도 하고 땀안나는 땀을 빼고 갑븐 고개를넘고 잇는듯하다.

철이도 책장을한장 억지로 넘겨보앗다 어책은 민법총론―

『무능력자』

민법이 무능력자라함은 미성년 준금치산자 금치산자 그리고 안해여다 연해의 행위능력을 제한함은 부부간의 화합원만의 목적으로써 결코 안해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말미암음은 아니다 따라서 진실한 의미로 볼젠 무능력자라취급할게 아니다』 라는 대목이 나타난다. 어째든 지금 법률은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잇지안나.

바로 여페안즌 여의전생 열심으로 붉은 연필로 독일어미테다 펑장하게 줄울처가며 사람바쪽을 실줄이 퍼러케 붉어케나온 해부도가 잇는책과 눈씨름하고잇다. 다 잘아는지는모르지만 고리 다아는것도 갓지안타.

암만그래도 당신도 시집가면 능력자가 되는구먼그려.

어쨋든 우리 학생이나 당신이나 따분한 처지오그려, 들울소리는 아니지만 누가듯는다면 설업슨여석 할것이다. 어도 철이는 잘알고잇다. 창너머로 가을하늘은 맑고 전차소리는 시간을 되씹는다.

오케 그랜드쇼ー

오케一專屬藝術家總動員 C·M·C 째쓰밴드

◇出演◇
徐李張崔金李高李李裵李裵金朴孫
鳳寅世南貞銀福花蘭龜成勝稜是牧
二權貞鏞九波壽子影勝雲子子春人

十八 十九 (兩日夜間) ◇ 府民館 七時半

朝光 十一月号 定価四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戰時下의轉業失業問題 李健赫
法律家로서의『하이네』 金汶植
漢口陷落後의情勢는어찌되나 咸仁基
취코와歐洲의危機……林元根
張鼓峰停戰協定現地顚末記……吳快一
朝鮮農村의將來와滿洲移民 金達鎭
▲前衛繪畫의本質……趙五將 ▲텔레비존……編輯室 ▲病院……朴泰遠 ▲勝利의날……이라ー세크 ▲어머니의사랑……린컨 ▲意志力……포슈元帥 ▲웃는動物……아리ー베르그손

骨相學者吳介石氏의觀相記
勿驚五十萬名의觀相을본觀相學者吳介石氏의興味萬點인懷古談

尹心悳의觀相記
玄海灘의情化한鬼 (K記者速記)
지금으로부터 十三年前 靑年藝術家 金祐鎭君과 손을마조잡고 玄海灘의怪鬼가된 옛날의聲樂家尹心悳孃의 얼굴에는 어떤 運命이 씨엿다고! 어느新聞社보다도 孃의悲慘한 裏面史를적어놓고잇는 吳介石氏의 무서운豫言!

高名人物의觀相談 吳介石
韓末부터現代까지
齋藤、山梨、宇垣의 歷代總督을비롯하야 閔泳徽、閔元植、閔天植、韓相龍等諸氏와 멀리는袁世凱의 觀相까지보러간 吳介石氏의 興味津津하고 猶奇百%의 秘藏談을 드리라! 한번손에들면 노치못할特種記事!

無軌道! 卜惠淑申不出才談記 一記者

朝鮮文壇卅年側面史 安夕影

나의遺言狀
◆空手來空手去……崔永秀
◆遺言狀을쓰면서……蔡萬植
◆관데온의祈願……金文輯
▲꿈外二首(時調) 春園
▲鄕愁外二首(詩) 金尙鎔
▲가을하늘外一首(詩) 吳一島

十一月隨筆
菊花……白鐵
다듬이……蔡萬植
燈下……李源朝
鴻雁……金南天
散策……朴魯甲

心懷(隨想) 春園
京城中央放送局解剖 特派記者

世界的人物會見記
히틀러、아인스타인、오이켄、諸氏의印象……安浩相
世界各國의諸偉人의面影……李克魯

名士漫問漫答
第一部
(第一問) 지금까지에 하여본 가장 荒唐無稽한 空想은?
(第二問) 貴下의『니네임』의由來는?
(第三問) 黃·赤·黑·白·紫·綠·靑等에서 聯想하는것은?
(第四問) 探偵小說·유―모어小說·戀愛小說中感銘깊은作品?
第二部
(第一問) 絕世美人·大學者의 女子·一億圓中何者를取하겟나?
(第二問) 映畫·演劇中가장 …기른作品?
(第三問) 世上에서 가장 기뻣든것세가지만
(第四問) 國際結婚은 … 어느나라사람과하겟다?

史譚 生六臣傳……車相瓚
野談 空棺移葬……申鼎言
▲歐洲舞踊界見聞記……趙澤元

學生時代行狀記
◆戀愛片想(나의戀愛觀)……異河潤
◆世上을아는戀愛(나의戀愛觀)……徐光霽
◆슬픈내半生(나의懺悔錄)……方仁根
▲울트라暴狀記……金文輯
▲曼蘭菲爾賓……安懷南
▲映畫狂時代……韓雪野
▲그리운追憶……韓仁澤
狩獵物語 노루산양의珍話綺譚……南砲手

漢陽映畫社 歸着地
近代世界文豪異聞……李雲谷
▲위신통의追憶……心堂學人
▲慰呈啓礎先生……洪碧初
▲病中和碧初韻……方啓礎

創立三週年에際하야……李勳求
新人詩帖
哀歌……柳致環 蒼空……崔環涉
時計……尹崑崗 마네킹人形……劉演玉
虛謚……李燦 女人……張萬榮
찬비……吳時泳 處女像……徐廷柱
歌歌……李時雨 女人二題……金鍾漢
創刊三週年史……咸大勳
漢陽都의古蹟巡禮……車靑吾
讀者文藝募集
畫報 ▲崔承喜舞踊포ー즈 ▲全朝鮮男女名人賞者 ▲學生美展入賞者

歷史小說 帝星台 金東仁
短篇小說 山村 韓雪野
短篇小說 墓碑 咸大勳
短篇小說 금비녀 權明秀
戲曲 饗宴 金鎭壽